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세션 10, 언약, 구약과 신약,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0, 언약, 구약과 신약, 2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섹션을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특히 바울을 살펴보며 마태오가 아브라함의 참된 아들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가져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마지막 섹션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된 창세기의 약속의 성취에서 예수를 아브라함의 참된 씨로 더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16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아브라함의 씨와 동일시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끝맺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므로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은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흐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의 다른 요소는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 안에서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주제의 대부분에서 이것을 봅니다. 약속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고, 그런 다음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그의 백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16에서 우리가 이미 간략하게 이야기한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3:16장을 읽은 후,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3:7에서 갈라디아의 바울 독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지만, 3장 맨 마지막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29에서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부수적인 메모로, 저는 거기에 땅의 약속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땅과 창조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약속을 소유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9절이 시작하듯이,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장 1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참 씨이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 번,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참 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3장 16절). 만약 당신이 그에게 속해 있다면, 당신도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라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일반적으로 연관시키지 않는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은 아마도 지금 아직 아닌 것으로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요한이 완성에 대한 환상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아닌 것으로 넘어갔지만, 그것을 언급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나 아브라함의 자손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언급하는 다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그 다음에, 즉 처음 여덟 구절에서,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파에서 144,000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후에, 이것을 본 후에, 인봉된 144,000명을 본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서 왕좌와 어린 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큰 무리가 아무도 셀 수 없고,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에 속한다는 묘사입니다. 제 판단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몇몇 해설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판단에 따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라는 이 언어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5-17장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일관되게 반복하셨고, 그 이후의 족장들 중 일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거나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이 언급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한 번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원래의 약속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를 강력한 나라로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그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과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도달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호소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호소된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축복받는 민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셀 수 없는 무리가 됨으로써 축복받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는 것의 꼬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이 의도하는 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씨가 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창조 당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을 몇 분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세우고, 그의 왕좌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세우고, 영원히 통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이 만장일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시작을 보았고, 시편 2편, 시편 110편, 시편 89편 등 일부 시편에서 반복되었지만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도 다윗의 인물인 가지, 즉 일어나게 될 예새의 싹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통치자와 다윗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모든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긴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을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과 5절과 같은 본문에서도, 저는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네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가? 시편 2장과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저자는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7장 14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특정한 다윗 언약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사실, 당신은 같은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본문 중 다윗 언약 공식을 취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참조하는 본문은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 그의 적들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또 다른 다윗 시편인 시편 110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본문을 지적할 수 있고, 다른 여러 본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약 학자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어디든 메시아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유명사나 명칭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칭호로 여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여전히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다윗의 아들이며 다윗에게 한 약속을 성취한다는 가정과 명확한 표시를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종종 간과되는 것은 약속과 매우 비슷하게, 아담의 약속과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이 그의 아들이 된다는 다윗의 약속도 그의 백성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두 번이나 살펴본 본문은 땅과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저는 18절을 여러 구약성경 인용문의 맥락에서 읽고 싶습니다.

여기 18절이 있습니다. 16절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합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바울이 18절에서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될 것이다. 이사야의 인용문을 합쳐서 전능하신 주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저자는 다윗에게 약속을 가져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참 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약속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는 아닙니다. 잠시 아직 아닌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지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다시 '아직은 아니다' 측면을 살펴보고,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계시록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농담은 아니지만, 7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인용한 목록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취되는 구약성경 약속의 일종의 장황한 목록입니다.

6절,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 나는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물을 주리라. 이사야 55:1. 승리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혹은 NIV는 그것을 자녀로 번역한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공식에 대한 또 다른 암시 또는 인용.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다윗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그의 추종자들 안에서 성취된 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시록 21장 7절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다윗 언약과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의 의도 사이의 연관성을 봅니다.

아담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다윗을 통해, 다윗의 더 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실행됩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다윗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원의 축복, 새 언약의 축복을 분배하고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져오지만, 그의 백성도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는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주나 여담으로, 이것은 아마도 귀속 개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순종, 그의 죽음, 순종,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 순종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자들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오랜 전통이 있는데, 정당화의 일부는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신 분이고, 다윗의 아들로써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의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합된 자들로서, 다윗 언약은 우리 안에서도 성취됩니다. 다윗 언약의 빛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순종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에 순종하는 대표자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완벽하게 순종하고 순종으로 응답하시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미덕으로 그 순종이 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속되고, 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확장하여 그의 추종자들 안에서 성취됩니다.

모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진술은 마태가 산상 설교를 기록한 내용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마태가 설교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론은 서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요점에 도달하기 위해 길을 비우고 설교의 나머지 부분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나 펜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NIV에서 율법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맞는 말일 겁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율법에서 한 획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실 때, 즉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모세 언약의 일부로서, 그들이 따라야 할 규정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이 맥락에서, 저는 예수께서 주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셨고,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명확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하고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신, 저는 5장에서 성취를 마태가 처음 두 장, 특히 2장에서 성취를 사용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2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유아기에 행하신 모든 일이나 부모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마태가 구약성경 본문의 성취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또는 이것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또는 이것은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등등.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가 가는 곳마다, 성취하는 것으로, 즉 완성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지적된 것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 언약의 일부로서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글쎄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율법이 실제로 지적한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사역은 실제로 모세의 율법과 모세 언약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과 사역은 이제 그것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모세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모세 언약의 일시적 본질에 대해 언급합니다 .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는 일의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 언약의 주된 성취가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에서 약속된 새 언약이고 , 예레미야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과 그 이후에 약속된 아브라함 언약은 궁극적으로 모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한 것은 모세 언약이 실제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일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볼 시간도 없지만, 바울이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 언약의 일시적인 본질에 대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시적인 역할을 했고, 약속이 도착할 때까지, 아브라함 언약의 진정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도착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했으므로, 모세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점은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제쳐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영원한 성취가 아닙니다.

대신 바울은, 아니요, 구약을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탱하는 일시적인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오는 성취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15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 생활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세워진 인간 언약을 제쳐놓거나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이 세워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언약이 와서 그것을 대체하거나, 제쳐놓거나, 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말씀되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씨앗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한 씨앗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후 430년 후에 도입된 율법은 그것을 폐하지 않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우신 아브라함 언약은 그러므로 약속을 폐하지 않습니다.

만일 유업, 곧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범죄 때문에 더해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씨가 나올 때까지, 3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이 언급된 씨가 올 때까지.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어지고 중보자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 당사자 이상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는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의 지배 아래 가두어 두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질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몇 구절 더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들을 붙잡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기능했다는 그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율법은 그 목적을 달성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속력 있고 권위 있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또한 3장 10절에서 이 부분에서 주장합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모든 자는 기록된 대로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1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온 저주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아브라함 언약이 구약인 모세의 언약에서 주로, 섬세하고 철저하게 성취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의 언약은 성취를 가져오는 예의 역할을 하지만, 바울이 말했듯이, 약속된 씨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잠고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도래했으므로 독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8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장도 성전과 관련하여 다룬 또 다른 장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8장에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다양한 사건과 인물, 제도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그 주장의 일부로서 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것을 가져오고, 우월한 언약을 개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우월하다는 방식은 저자가 예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옛 언약은 계획 A였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었고 그저 작동하지 않는 나쁘고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폐기하고 다른 것을 하십니다.

하지만 대신 저자의 주장의 핵심은 히브리서 1장과 2절인데, 이는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 조상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성취의 날에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또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절정에 이르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절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 약속과 성취의 하나로서 예수와 구약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저자는 긴 부분을 시작해서 예수가 구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가 지금 가져오는 구원은 구약에서 약속된 것의 궁극적인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자는 구약 자체에서 모세의 옛 언약이 여전히 구속력이 있었다면, 왜 신약에서 이것이 단순히 신약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기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옛 언약이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인류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죄를 다루는 그의 마지막 수단이었다면, 옛 언약이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 표현이었다면, 왜 수년 후에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수립을 기대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 저자는 새 언약의 구절인 예레미야 31장을 자세히 인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새 언약은 에스겔 36장과 37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요엘 2장과 다른 곳에도 나와 있지만, 저자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새 관계를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7절은 첫 번째 언약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다른 언약을 찾을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이 죄를 다루고 인간과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충분했다면, 왜 나중에 새 언약을 언급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고, 8절에서 예레미야를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오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을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그 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울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언약의 공식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을 가르치거나 서로에게 여호와를 알아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런 다음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름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쓸모없게 만들었고 쓸모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긴 예레미야 31장 인용문뿐만 아니라 옛 언약, 옛 언약이 하려고 했던 것이 새 언약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표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새 언약에서는 완전한 갱신이 있고,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갱신이 있으며, 에스겔 37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죄의 용서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옛 언약의 문제는 옛 언약이 죄스럽거나 나쁘거나 잘못되었거나 일종의 계획이어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완고함, 반항, 불순종이었으며, 옛 언약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은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약의 일관된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 옛 언약은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시작된 새 언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의 나머지와 다음 섹션에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나머지 시간을 새 언약과 신약에서의 그 성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취를 가져다주는 포괄적인 언약이 되도록 의도되었다고 이미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언약을 유지하는 언약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의 정점, 성취입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은 그 모든 것을 절정, 정점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또한 사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신약 본문을 볼 때 연관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가지 주요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에스겔 36장과 37장의 해당 부분인데, 여기에는 언약 언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맺을 새 언약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땅과 회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 저는 새 언약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러한 관찰을 Scott Hafeman의 *Central Themes in New Biblical Theology*에 실린 글과 다른 여러 저술에 빚지고 있습니다.

첫째,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따르면, 새 언약은 주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옛 언약을 깨뜨린 것은 바로 그 이유이고, 그래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필수 요소는 이전 언약처럼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예레미야 31장). 그리고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롭게 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에스겔 36장).

셋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이전 구속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죄의 완전한 용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특히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있지만, 또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우상 숭배를 깨끗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는 그들의 사악함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죄의 완전한 용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며, 그의 죽음과 부활이 언약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새 언약의 발전에서 볼 것입니다. 이제, 제기되는 한 가지 질문은, 구약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모두에서 새 언약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는 분열된 왕국, 북쪽과 남쪽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언약이 에스겔에서 맺어지고, 두 왕국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도달하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서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새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과 씨름했던 한 가지 신학적 체계나 운동은 우리가 언급한 것인데, 그것은 경륜주의입니다. 이 긴장이 어떻게 씨름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다른 경륜주의적 주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약속이 있는 반면, 신약성경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당신은 새로운 언약과 그 약속과 축복이 이제 신약 저자들이 언급하는 다양한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는 듯합니다. 종종 고전적 경륜주의라고

알려진 경륜주의 내에서 그 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매우, 매우 날카로운 구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그들에 의해 성취되어야 합니다.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동일시되거나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더 고전적인 오래된 경륜주의에 따르면 구약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종종 그것이 설명되는 방식은 죄의 용서와 새로운 마음과 같은 새 언약의 영적 축복 중 일부가 교회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교회에 주어지지만, 그것이 새 언약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만 성취될 수 있지만, 교회는 이스라엘이 새 언약에서 얻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축복의 일부를 얻습니다. 종종 더 진보적인 분배주의로 알려진 것은 실제로 새 언약이 교회에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취됩니다.

축복의 일부가 교회로 흘러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미래의 언젠가 종말론적 성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미래의 성취를 여전히 남겨두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주의의 더 진보적인 운동 중 일부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종말론적 성취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핵심은 당신이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장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제정된 새 언약의 성취와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계시록 21장 3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새 창조에서 완성된 성취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새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안에 있지만 계시록 21장의 새 창조에서 완성된 형태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약하거나 요약 진술을 하자면, 우리가 신약성경 본문과 새 언약의 성취를 살펴보기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축복이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으며, 새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의 구원, 구원받음, 구속받음, 성령을 받음, 내 죄가 용서받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새 언약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은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과 세우신 새 언약 외에는 구원의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지금 누리고 미래에 누리게 될 모든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고 성취하신 새 언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령은 교회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발명하거나 강조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 저자들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신약에서 어디에 나타나든 궁극적으로 신약에서의 임재를 새 언약의 약속에 빚지고 있습니다.

다시 요엘 2장이나 에스겔 36장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에서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시려는 새 언약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축복, 성령, 구속, 죄 사함, 이 모든 것들이 새 언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의 백성과 새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취에 대해 생각할 때, 새 언약의 시작점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할 곳은 아마도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 20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과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시는 주의 만찬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그 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유월절에서 의도된 바의 성취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그저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약속과 성취의 측면에서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구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 친교, 성찬례,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마태는 이것이 언약의 내 피라고 말합니다. 혹은 마태는 예수께서 이것이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내 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언약의 언어와 죄 사함의 언어를 주목하세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바로 나온 것 같고, 아마도 에스겔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신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누가 22장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을 주목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과 20절에서 누가 기록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찬 후에 예수께서 유월절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부어지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이 새 언약의 확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언약이 제정되고 새 언약에 따라 약속된 죄 사함이 확고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새 언약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새 언약 본문으로 돌아가는 암시인 복음서의 다른 구절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예수가 성령을 분배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이 나중에 영을 받을 때까지 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특히 에스겔 36장이나 요엘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영을 분배하실 것입니다. 또는 같은 책인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와 니고데모 사이의 잘 알려진 대화가 있습니다.

3절부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는 매우 진실로, 내 킹 제임스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무도 거듭나거나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무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 판단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제게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지만, 제 판단에 따르면, 이것은 에스겔 36장과 우리가 거기에서 본 새 언약의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6장의 구절을 찾을 수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24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에서 인도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으고, 너희를 너희 본토로 데려다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물입니다. 너희는 물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면, 너희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26절,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습니다.

27절,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령을 따르도록 너희를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약속하셨을 때, 또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에제키엘 36장의 새 언약 언어로의 직접적인 암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제 생각에,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죄 사함을 약속하실 때마다, 그분은 예수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사함을 제공하실 때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새 언약, 특히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서에 대한 암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서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가져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나중에 바울이 죄 사함을 언급할 때, 우리는 아마도 그것과 새 언약으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그의 피가 새 언약을 비준하고, 용서를 가져오고, 주의 만찬의 말씀에서 새 언약을 시작하는 것, 요한복음 7장과 다른 곳에서 예수가 성령을 분배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는 에제키엘 36장과 연결되고, 예수가 제공하는 죄의 용서는 모두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예수가 새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12명의 제자와 사도로 시작하여 새 백성을 모으기 위해 오셨지만, 믿음으로 그에게 응답할 새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새 언약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땅에 회복시키실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새 언약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새 언약을 제정하고 비준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에서 발견되는 약속된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새 언약은 아마도 구약의 옛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새 언약은 아마도 구약의 희생 제도에서 유형적으로 다루어졌던 구약의 죄를 거슬러 올라가 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공하시는 새 언약의 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복음서들은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사용하지만, 항상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을 시작하셨고,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는 의도를 성취하신 것으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럼, 다음 섹션에서는 바울 문헌과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성취,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를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여러 다른 신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계시록 21장의 새 창조에서 새 언약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0, 언약, 구약과 신약, 2부입니다.